

# 해남 송지초 사회적경제동아리, '스마트한 영농후계자'

회원 11명, '2021 국제농업박람회' 방문 견학

미래 농업 기술 확인·체험할 수 있는 행사

해남 송지초등학교 사회적경제동아리 11명의 회원들은 10월 23일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1 국제농업박람회'에 견학을 다녀왔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을 슬로건으로 한 2021 국제농업박람회는 20개국 260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업의 기술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전남미래교육재단'에서 우리 학생들이 첨단 미래 농업기술을 체험하고 농

업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개최로 인한 우려가 있었지만 박람회장 입구부터 발열 체크, 전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사전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주최 측에서도 사전 등록을 마친 한정된 인원만 입장하게 하여 밀집·밀폐·밀접 접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역에 철저하게 힘쓰는 모습을 보여서 우

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특히 각 행사장마다 안심번호 인증을 진행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동아리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미래 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평갈 송지면에서 버스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입장하기까지 방역이나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에 비하면 견학 시간은 2시간 남짓으로 짧아서 여러모로 아쉽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직접 두 눈으로 생생히 마주한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마주했을 때 견학 시간 2시간은 그 이상으로 더 값지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미래 농업, 생생한 경제교육이 드넓게 펼쳐진 박람회장에서 학생 자율 동아리 자격으로 참가한 팀은 송지초등학교뿐이어서 왕복 3시간의 소요 시간도 아깝지 않았다.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이 전통 산업을 넘어 첨단기술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했음을 알리고 미래 첨단 농업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과 기업에 최상의 사업 기회를 제공할 비즈니스 장이자, 세계 속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 농업은 지구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대안이 될 것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송지초등학교 사회적경제동아리 회원 이지우 학생은 "농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봐서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했다. 귀여운 동물들도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고 말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중한 경험이 미래의 스마트한 영농후계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기동취재본부

## 장성 동화초, '여러 나라 전통 놀이 주제' 다문화이해교육



전교생의 50% 정도가 다문화학생인 전남 장성 동화초등학교는 다문화

전교생이 함께 참여

정책학교로 보다 깊이 있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자 애쓰고 있다. 22일에는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행사를 실시하기 몇 주 전부터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한 데 모으며 준비하였다.

학년군별로 나누어 1~2학년은 몽골의 '샤가이', 3~4학년은 인도네시아의 라리까유, 5~6학년은 일본의 캔다마를 체험하였다.

이어서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 놀이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의 만국기가 그려진 도미노를 전교생이 연결해보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다문화이해'에 대한 영역만 생각하는데 '협력'이라는 요소 역시 다문화이해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자는 의도였다.

전교생이 정해진 시간에 복도에 모여 각 학년이 맡은 부분에 도미노를 세워 연결하였고, 마침내 본교 학생회장이 스타트를 끊어 도미노가 차례대로 쓰러지는 전풍경을 자아냈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 정남진산업고 드론동호회, '역사탐방 수료식'



장흥 창작공간 해우와 한국NGO레인보우 영상제작마을학교가 함께 협업을 진행한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지난 24일 그동안 참석하여 활동하였던 정남진산업고 드론동아리 친구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전라남도교육청 역사탐방공모사업

지역 공동체와 협업

으로 지원된 이번 행사는 창작 공간 해우가 주관하고 영상제작마을학교 드론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가 협업하여 진행된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

장흥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활동으로 보림사, 방촌마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3차에 걸쳐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와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장흥의 역사를 해설사를 통해 전해 듣고 드론으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었다.

지역 기관들이 서로 공동체 역할을 분담 장흥마을학교교육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최소한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형성된 것이 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팀이 아닌 모두가 팀이 되어 마을 교육에 앞장서며 장흥지역 활성화에도, 학생들의 문화에도 도움이 되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활동을 위해 또 달릴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할 것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 순천영재교육원, 창의융합캠프·메이킹 진로캠프 운영

수학·과학·정보·메이킹 영역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순천영재교육원이 10월 25일부터 2주간 총 6회에 걸쳐 초등 자연과학영역 116명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캠프 및 메이킹 진로캠프를 운영한다. 11월 9일, 11일에는 중등 자연과학영역 54명을 대상으로 아두이노를 주제로 한 메이킹 진로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창의융합캠프와 메이킹 진로캠프는 수학, 과학, 정보, 메이킹 영역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융합적 요소들을 직접 체험해보며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의융합캠프는 조도둑 시스템, 엠인벤터, 만질 수 없는 물 등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메이킹 진로캠프는 3D프린터 모델링, 아두이노 차량 차단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나주교육청, 역사·문화체험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운영

체험중심 교육활동 구성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은 10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체험프로그램 내용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과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키고자 주제형 프로그램(이병, 항일, 마한)과 권역형 프로그램(읍성권, 다시·영산포권, 다도·남평권, 반남·동강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학부모 해설사를 양성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